

Wednesday, July 2, 2008 / 제 21권 3호 통권 120호



우리는 어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보다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일 것인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헬라어 원어 바실레이아(Basileia)가 영토나 땅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왕권 혹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8 코스타 셋째날의 daily theme은 'The Kingdom, here on earth'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중보기도와 나눔을 통해, 또한 선배들의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기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 수요일의 이른 아침부터 야고보서 2장의 말씀으로 조별 QT를 하고, 이어 코스타의 무대에서는 바이올린 독주로 (장선미 자매: 바이올린, 지혜경 자매: 피아노)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정 자매가 삶을 나누는 코스타의 현장에 이어서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화중부 목사의 두번째 주제강의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어제에 이어 김현희 목사의 책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 첫번째 오후 시간에는 Family time으로 가족들 혹은 조원들과 함께 휘튼 캠퍼스의 여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Alumni Gym에 위치한 Expo와 서점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오후 시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택식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녁 - 김병문 교수의 일터의 현장 간증에 이어서, 손창남 선교사께서 'The Kingdom, here on earth - 흠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 이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조원들과의 나눔으로 2008 코스타 셋째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

알려드립니다 !!

1. **김진숙 목사님 사역소개** 책자가 본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본부에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 **Support Group Meeting**이 상담실에서 3시에 있으니 참석자들은 상담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하신 분들은 상담실에서 상담배정표를 pick up하시기 바랍니다.

Daily Themes

월: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
 화: People of the Kingdom
수: The Kingdom, here on earth
 목: Called to the Kingdom of God
 금: We are Servants of the Kingdom

2008 코스타 두번째 날 이야기

코스타 집회의 두번째 날이 은혜롭게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첫 주제강의에서 화중부 목사는 로마서 11:33-36 에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지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지식과 지혜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녀로 입양해 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또한 베푸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인정할 때에 비슷한 감격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두 번에 걸친 세미나 세션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여러 건물들을 찾아다니느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지만, 기초신앙, 신학부터 가정생활, 제자양육, 선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에는 노진준 목사께서 마가복음 5:1-20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는 승리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은 긴장 상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긴장 가운데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앞에 엎드린 귀신들린 사람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다른 종류는 귀신들린 사람의 치유를 목격하고도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목격자들처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언제나 예외없이 우리를 세우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주권과 계획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어진 초청 시간에 노진준 목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분께 자기를 드릴 것을 코스탄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의 초청에 32명의 형제, 자매들이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응답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코스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며 감격의 시간에 동참하였습니다. †

KOSTA EXPO 에는 어떤 단체가 참석하나요?

YUST/PUST

2008년도 KOSTA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분을 찬양합니다. 중국의 문을 여는 Gate로서 동시에 연변지역에 흩어져 사는 조선족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세워진 연변 과기대가 올해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 좋은 대학으로 평판이 나 있고 매년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어엿한 Hub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단한 지역까지 졸업생들을 보내는 Sending Agency의 역할을 하던 연변 과기대에게 우리에게는 고토인 평양 과기대라는 새로운 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15개의 건물이 완공되었고 내장은 마무리 단계이며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될 개교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단 60년 만에 새로운 화해의 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열리게 된 것 입니다. 세상은 지금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민족과 국가를 뛰어 넘어 상호 교류 및 협동을 하고 있는데 남과 북은 한 민족임에도 대립과 경계의 관계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평양 과기대라는 교육 매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북쪽에서도 잘 준비되어 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북아를 뛰어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북쪽의 젊은 인재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평화의 한 축을 감당할 것이라는 비전을 또한 가져봅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또한 그 나라와 의를 위해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GMF-NA

Global Missionary Fellowship-North America (GMF-NA)는 북미주로 디아스포라된 한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에 순종하여, 한인 교회에 축복으로 주신 자원들이 갖고 있는 선교 잠재력을 동력화하여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GMF-NA는 98년부터 미국 코스타 선교 헌신자 팔로움을 돕는 미션 코스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선교 헌신자들을 훈련하는 'What's Next?' 선교 컨퍼런스를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선교 헌신자들이 세계 여러 곳의 선교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GMF-NA는 미전도, 미개발 지역에 통합적인 복음을 증거하여 현지인이 현지인을 선교하는 주체로 세우는 사역 목표를 가지고 지역 개발 선교 연구소(Institute for Biblical Community Development, IBC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약18억의 미전도 종족 중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리적, 사회적 기본 필요들로부터도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IBCD는 미전도, 미개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향력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인력들과 함께 통합 선교(Integral Mission)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iblical Seminary

Recently, there was a story on the Internet about a bridge in Alaska that cost over \$900 million to build but ... (7면으로 계속)

[사설연재 2]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참된 부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태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 막 10:25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시는 결단을 해야 한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누리는 삶을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나라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결단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코스탄들에게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만나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끝이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는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가?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계신가?

둘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고민하자.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 원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 그분의 비전, 죽음과 부활이 보여준 모범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분이 태어나신 누추한 자리, 그분이 살아가신 가난한 삶, 그분이 관심을 가졌던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고통을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자. 떠남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여정의 놀라움과 변화를 체험할 수 없다. 현실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사람은 그 걸음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변화의 원동력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산다. 뒤돌아 보지 않는다. 결코 뒤돌아 보지 않는다. 코스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만났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가. 그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

[코스타 서평 3] 이성교제, 결혼, 가정

기독교적 결혼관의 핵심은 결혼을 언약 관계로 보라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시각이 계약으로서의 결혼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 이익을 위한 계약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맺는 언약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교제와 결혼,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독교적인 이성관, 결혼관을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이번호 코스타 서평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한 이성교제,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책을 소개해본다.

마이크 메이슨, 결혼 그 신비로움의 비밀, 도서출판 바울서신

Mike Mason, The Mystery of Marriage, Multnomah Books, 2005
저자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 otherness, love, intimacy, vows, sex, submission and death의 주제로 깊이 묵상하고 있다. 간단한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깊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통찰력있는 문장으로 결혼의 신비를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저술상인 Gold Medallion Award winner이며 20주년 기념판이 재판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미문 이어서 서문에도 나오듯이 커플들이 서로 읽고 읽어주면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번역본을 구하기 어렵고, 영어본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조은숙,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IVP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독교인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겪고 있는 부부사이의 문제를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선교단체 커플이 실패한 결혼 생활을 다시 변화시켜 나가는 이야기이다. 결혼 생활에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부부들에게 해결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나눔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마지막 장의 내용, 가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른 책에서 말하지 않는 중요한 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내용을 대폭 확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 만약 2편을 쓴다면 이 부분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면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로렌스 크랩, 결혼건축가, 두란노서원 잭, 캐롤 메이홀 부부, 사랑 그 이상의 결혼, 네비게이터 출판사 추위현, 생애의 반려자, 5장 독신이나 결혼이나, IVP

책은 결혼 준비서로서는 바이블에 해당될 정도로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잘 제시하고 있다. 아주 표준적인 목차를 갖고 있는데, 시선을 끈 것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선택함'이라는 장이다. 의사소통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선택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 교과서로 생각하고 샀다. 말하고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많은 남자들이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반해 여성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특히 표현하기 보다는 참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할 것을 교육받은 한국의 남자들은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추위현의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독신의 문제는 만혼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더 의미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독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또 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 (4면으로 계속)

[기획기사 3]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부활의 의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부활하였다. 모든 인류를 공통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죽음을 극복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음을 증명한다.

한편 이런 믿음 위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더 깊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그 나라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분명한 소망의 근거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부활의)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고전 15:23-24)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설교, 제자들에게 준 기도문, 그리고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여 주었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 그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것이며 그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승리가 분명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은 빈자와 약자 편에서 서서 사랑과 진리와 자비를 추구한 삶이었다. 그의 삶의 결과가 죽음이었다면 그의 삶 전체는 실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의 삶이 실패라면 그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짓과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진리와 정의에 따라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 아닐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 따라 산 예수의 삶도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러나 부활은 그 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 예수는 진정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가 추구했던 진리와 정의의 삶이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는 사실을. 그가 전하고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가 흡사 부활이 죽음을 이기었듯이 세상의 악한 나라를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때 겪을 수 있는 고통의 현장에서 오히려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승리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 임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반드시 이길 것임을. †

기획기사연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

기획기사 1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

다. 코스타 보이스는 이번 코스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검토하

기획기사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 십자가

는 기획기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기획기사 3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기획기사 4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기획기사 5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주권 -
하나님 나라와 악의 문제

[코스타 서평 3] (3면에서)

전정일, **맞벌이 부부로 산다는 것, 다산복스; 나성숙, 북어국, 디자인하우스**

결혼, 연애, 가정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이고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있다.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로 산다는 것’에서는 한국에서 맞벌이부부로 사는 어려움과 애환이 깊이 느껴진다. 굉장히 우울해지지만 고통과 갈등 속에서 힘을 내서 사는 한 부부의 모습 속에서 희망도 읽을 수 있다. ‘북어국’은 신문기자인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아내의 글모음이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기독교 서적 중에 언약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이 언약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하는 점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언약이므로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한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이야기, 결혼 과정, 고부갈등,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의 문제 등을 포함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책들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

[강사 인터뷰]



화중부 목사 (제자들교회)
 >>주제강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영국 에딘버러대학 교회사 석사 졸업
 전 내수동교회 대학부 담임목사
 전 옥스포드한인교회 담임목사
 현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1.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씨는 회귀성인데, 성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화중부 목사라고 하구요. 대학 다닐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내수동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했구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옥스포드 한인교회 담임목사를 거친 후에, 서울에 있는 제자들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성내동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서 아내와 함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화씨는 회귀성이 맞습니다. 4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오셨습니다. 화씨는 할아버지께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서 귀화할 때 받으신 성입니다. 따라서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회귀성이지요.

2. 코스타에서 전체집회 강해를 맡으셨는데요, 코스타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시나요?

5년 전부터 코스타에서 초청해 주셨지만, 매번 선약이 있어서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고, 준비팀에서 미리 연락을 주셔서 처음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화중부 목사님하면 청년사역자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지금 섬기고 계신 제자들교회를 청년 중심의 교회로 볼 수 있는지요? 지금 하고 계신 청년 사역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적인 풍토와 상황 때문에 캠퍼스에서 있는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국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청년 사역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고 있는 청년 사역은 없습니다만,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그리 크지 않음에도 청년대학생이 200명 남짓 되고 1년에 20번 이상 결혼식 주례를 하고 아이들은 1년에 30명 정도 태어날 정도이니까요.

4. 수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강해설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강해설교를 하게 되신 배경과 의도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강해설교를 주로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본문을 배경으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수도 있어야 한

다고 생각했고, 그런 취지로 게시물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다루면서 나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싶기도 했습니다.

5. 당시 강해설교 중에 중요한 표현이 Upside Down Kingdom이었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개인에게 집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 교회 전체 공동체 혹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나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왕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에베소서를 다룰 때에도 같은 것을 느꼈는데, 에베소서를 제대로 다루려면 교회에 대한 역사적 논쟁을 알아야 풍성하고 넓어지지만, 실제로는 본문만 다루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틀과 여러 신학적 논쟁을 다루고 나서 본문을 다루었으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더 폭넓고 풍성하게 다루를 수 있었는데, 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하고 넓혀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6.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주제 '이 시대에 바른 길로 -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같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결정을 하고 이끌어가는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가 공동체적이나 나라 전체를 배제하지 않지만 출발은 늘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동체적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개인이 주변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멧가를 지불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이 아닌 개인의 변화와 삶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둘을 최대한 통합하되 적용은 철저하게 개인과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유학 경험을 비추어 보실 때, 코스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석사과정만 해서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유학생을 통해서 학문보다는 외국생활 자체에서 배운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은 아주 특별한 기간이고, 직장 후에 새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시간과 우선순위와 삶의 배분을 충실히 하면서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철저히 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분명히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

KOSTA in KOSTA

Mission KOSTA는 1회 집회부터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전체 참석자의 약 10%가 자신의 삶을 세계 선교에 드리기로 결단해 왔습니다. 미션 코스타는 코스타 운동을 통해 드러진 선교 헌신들이 세계 선교의 현장들에 연결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 미션코스타 사역들 }

1. 'What's Next?' 선교 컨퍼런스

What's Next 선교 컨퍼런스는, 첫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여 세계 선교의 부르심에 헌신한 코스타들에게 선교 헌신에 대한 책임있는 삶을 도전하며, 선교 헌신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와 선교지로 가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선교 컨퍼런스입니다.

둘째, 코스타 집회의 감동과 헌신을 구체화하는 시간입니다. 현장 선교사들과 코스타 선교헌신자들이 2박 3일동안 서로에게 배우며 귀한 멘토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셋째, 코스타 선교 헌신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컨퍼런스입니다. 지역교회의 후원과 코스타 본부의 후원을 받아 초교파 선교단체인 GMF-NA (코스타 동역단체) 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2008 'What's Next?' 안내

일시: 8/21-23

장소: 빌립보교회(미동부 메릴랜드 주 소재)

강사: 손창남 선교사 (OMF-KOREA 대표,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영걸 교수 (지역개발선교연구소 소장, John Brown 대학)
김정민 사모 (상담 전문가)
김성모 선교사 (선교동원가, Mission KOSTA)

3. 다양한 단기 선교 기회

짧게는 1주, 2주에서부터 길게는 1년, 2년까지 선교 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선교사의 비전을 확인하는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전문인 사역, 캠퍼스 사역, 학원 교수 사역 등 미주 코스타들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선교멘토링

선교 헌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닥쳐올 많은 현실적인 장애물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하는데, 미션코스타는 적절한 멘토들을 연결하여 개인 상담과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간 코스타를 통해 드러진 선교 헌신들이 다양한 선교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드러지는 선교 헌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코스타 운동은 세계 선교의 사명에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션 코스타는 이 사명에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문의: 김성모 선교사 (KOSTA선교담당, GMF-NA 선교동원가)

http://cafe.godpeople.com/missionKOSTA

email: missionkosta@gmail.com

phone: 410-336-2021

[코스타와의 만남]

missionKOSTA

김지숙 인터뷰



1.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숙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에 왔고, 미국에 어바나 샬페인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에는 두번째 참석하고 있구요. 작년에 조장, 올해는 코디겸 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 코스타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요? 아직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지난 코스타와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다른 느낌을 받으시나요? 코스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책을 함께 공부하는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목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저자의 하나님 나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 코스타도 동일한 주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나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두번 모두 조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바심 내는 것이 많이 줄었거든요.

3. 선교에 처음으로 헌신하신 때는 언제이신가요? 코스타에서 처음으로 선교헌신 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두 번의 헌신이 본인에게 어떻게 다르게 다가왔나요?

2000년에 10일 정도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카작 2000이라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강사 목사님 중 한 분께서 시간의 십일조 드릴 것을 도전하셨고, 응답으로 처음 선교헌신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나서 작년 코스타 집회 때 선교헌신자 초청할 때에 다시 헌신하게 되었구요. 그 때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할 거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헌신이 좀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면 작년에는 더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missionKOSTA What's Next 수양회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참석하셨나요? 그 때의 경험과 받으셨던 은혜를 나누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작년 8월에 메릴랜드 빌립보교회에서 있었던 What's Next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선교헌신자를 대상으로 follow-up하기 위한 목적의 수양회였는데요. 전체집회를 통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부쩍 늘어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선교라는 것이 특별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살러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라는 점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선교 사님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컨퍼런스 이후에 어바나 샴페인에서 또 한번 선교 관련 집회가 있었는데, 선교 헌신 한번 했다고 해서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송까지 10-1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동안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Send me)>라는 책을 추천받아 잘 읽었고, 지역 관심자 모임이 형성되어 그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선교 관련하여 코스타에 바라는 점 혹은 코스타에서 조금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follow-up이 있기는 하지만, 선교는 단발성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타에서 예를 들면 신앙과 삶의 통합을 강조하듯이, 선교도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올해 코스타 집회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선교헌신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먼저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지가 나중의 파송지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을 깨닫고, 현재의 삶 속에서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체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

(2면에서) serves so few people that the locals have called it "The Bridge to Nowhere". Some might say that it's typical of the government to waste money like that. The church of Jesus Christ ought to be into building bridges, too, whatever the cost. Christians need to find ways to be unified, because that is how the non-Christian world sees the truth of the Gospel (John 17:21). Biblical Seminary is committed to build bridges between all members of His church. We train men and women to know the mission Dei, the mission of God, and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dogma (those truths central to the Christian faith), doctrine (for example, baptism--infants? adults?), and opinion (things that churches argue about--color of church carpet, for example!).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dogma, doctrine, and opinion is key to bridge-building and central to spreading the message of His kingdom. We welcome you to join the Biblical Seminary community and help us work out our salvation as we learn from Him.

한동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은 학문적 탁월함, 영적 성숙함, 섬기는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21세기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기독 변호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의 프로그램은 미국 변호사시험준비를 위해 총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3년 과정의 J.D. Equivalent 프로그램은 미국 변호사협회(ABA)에서 인가하는 미국 law school의 교육과정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적인 법의 무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정의에 대한 열정을 가진 변호사, 성실하고 정직하며 정의를 확립시키고 전

[김현희 목사 추천도서 2]

오전시간 전체집회에서 소개되는 김현희 목사님 추천도서의 상세한 소개입니다.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
이용규, 규장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Not I, but Christ)”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리를 저자 자신의 체험을 통해 쉬우면서도 감명 깊게 설명한 명작이다. 이미 많은 독자들이 구입한 베스트셀러이지만, 신앙을 자기성취적 도구로 오해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 교회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내려놓음으로 풀이한 본서의 메시지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추천한다.



신도의 공동생활
본회파, 대한기독교서회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대와 복음주의의 편향성 상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본회파는 독일 고백교회에 속한 신학자요 목사로서 나치 정권에 대항하면서 여러 제한된 조건 속에서 실제로 신학생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통찰을 가지고 본서를 썼다. 본서는 공동체 생활의 실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 가치와 기쁨을 잘 전달해준다.



하나님을 추구함
에이든 토저, 생명의 말씀사

토저는 가히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릴 수 있는 분이다. 현대 문화의 세속적 가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이상숭배로 전락하기 쉬운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일깨우는 그의 외침은 목마른 영혼에게 깊은 샘물처럼 다가온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영적 보배와 같은 책이다.

세계 인류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법을 사용할 새로운 변호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HILS의 부르심은 바로 전세계의 경제분야, 외교, 인권단체, 교육 분야, 낙후지역에서 섬김의 자세와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일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은 법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영향력 있는 탁월한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꿈에 동참할 HILS 후배들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

[코스타 광고]

선택식 세미나 Session 3 (3:20 ~4:40 pm)

코드	제목	강사	강의실
SP 101	부르심의 확신	이재훈 목사	Blanchard 322
SP 109	하나님 나라 “ANY CALL” 큐티를 아시나요?	박동희 선교사	Blanchard 139
SP 111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중현 목사	Billy Graham Center 12 (지하)
SP 113	울 아빠 어떻게 해? 내 친구는?	김태평 박사	Blanchard 323
SP 120	귀납적 성경연구 (이론)	하시용 목사	Memorial Student Center 105
SP 130	청지기 신학: 세상에 내것은 하나도 없다	한규삼 목사	Beamer Center 70 (식당 지하)
SP 140	신앙생활	김철홍 목사	Billy Graham Center 254
SP 150	유학생들의 선물: 화초신앙이 잡초신앙으로	최원영 교수	Blanchard 324
SP 200	새로운 선교 새로운 나눔의 시작 <보이지 않는 성전 - 경제적 선교 >	김범식 목사	Memorial Student Center 304
SP 210	한국으로 돌아갈까? 미국에 남을까? 답은 소명 !	팽동국 교수	Blanchard 455
SP 230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과 방향	이재천 목사	Billy Graham Center 134
TH 101	성경의 이해	권지현 목사	Billy Graham Center 140
TH 110	하나님 나라의 과라독스	황지성 박사	Billy Graham Center 10 (지하)
TH 240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	김현희 목사	Beamer Center 64(식당 지하)
TH 260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김수지 교수	Billy Graham Center 132
TH 340	기독교 or 개독교?	손희영 목사	Billy Graham Center Barrows Auditorium
FC 101	바운더리와 인간관계	방춘원 집사	Billy Graham Center 138
FC 110	배우자 선택, 이럴 때 꼭 짚어라	김향숙 원장	Blanchard 339
FC 111	싱글이를 싱글이로 만들자	송길원 목사	Blanchard 222
FC 112	행복한 부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고태형 목사 / 고종미 사모	Billy Graham Center 432
FC 140	신세대 자녀교육	변명혜 교수	Billy Graham Center 130
TM 101	직업은 많으나 부르심은 하나	강보형 목사	Memorial Student Center 202
TM 220	그리스도인과 사회과학	장성준 교수	Breyer 111
TM 330	과학, 하나님의 나라로 품고가라	우종학 박사	Billy Graham Center 136
JJ 101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제자 훈련	윤국진 목사	Billy Graham Center 250
JJ 200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양육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	추영규 권사	Billy Graham Center 255
JJ 310	그 날까지 그 길로	유남호 박사	Memorial Student Center 204
JJ 340	F-2를 향한 도전과 극복	이민자 사모	Beamer Center 45
MS 101	예비 선교사를 위한 조언: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홍현민 / 홍귀주 선교사	Billy Graham Center 11 (지하)
MS 210	은사 중심의 선교 - 당신의 다양한 전문성을 세계선교에 활용하라	정민영 선교사	Breyer 207
MS 220	전문인 선교	유성남 선교사	Memorial Student Center 302
MS 330	한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전략 /김병문 교수	김병문 교수	Armerding 129

◎지도번호 건물이름

1, Blanchard Hall 2, Billy Graham Center 7, Breyer Laboratory 8, Armerding Hall 11, Memorial Student Center 14, Beamer Center

알려드립니다 !! (2)

3. 기혼 코스타와 강사와의 만남이 오늘 저녁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강사 및 주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대화 주제	장소
김병문 / 방춘원	부부의 성격 차이	Blanchard 339
송길원	부부의 성(性)적 문제	Blanchard 222
김향숙	부부의 자녀계획	Memorial Student Center 105
고태형 / 고종미	부부의 자녀교육	Blanchard 455
홍현민 / 홍귀주	사역자 부부의 자녀교육	Memorial Student Center 304
변명혜	싱글맘의 자녀교육	Blanchard 322
김수지	특수아동 자녀교육	Memorial Student Center 202
장평훈 / 이민자	부부의 신앙	Blanchard 324
팽동국 / 이경희	부부의 동역	Memorial Student Center 302
장영실	기혼 여성의 리더쉽	Memorial Student Center 204